
제1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1957년9월23일(단기4290년) 상오10시45분

의사일정

1. 제14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각상임위원회위원선거의건
 4. 인가난3개국민학교개교불능에대한책임소재규명에관한질의
-

부의된안건

1. 제14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1면
 2. 보고사항 2면
 3. 각상임위원회위원선거의건 22면
 4. 인허난3개국민학교개교불능에대한책임소재규명에관한질의
..... 35면
-

(10시 45분 개의)

○의장 박명준; 이제부터 오늘 제15회임시회의 제1차회의를 40인이 출석하므로서 개회를 선포합니다.

인제 지난 14회임시회의 제1차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1. 제14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신용석;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의장 박명준; 지금 낭독한 회의록중에 착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느이 있음)

그러면 전차회의록은 이것으로서 통과된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간사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록서명의원은 전중남의원 김재광의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간사장 신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보유 차량 도난 통지의건

시유재산 반환요청의 건

서울특별시 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및 물건의매매대차 운반에관한 조례중 개정의건

이상 세건을 시에 관한건은 시장으로부터 또 국무원사무국장으로부터 각각 통지가 왔기때문에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일반회계소속 보통재산 매각처분에 관한건입니다.

본건은 9월13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이것을 재정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수도비 주택비 토지구획정리비 택지조성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변정 예산안 제출의건입니다.

본건은 8월31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 재정 산업 건설 사회보건 예산결산위원회에 각각 심사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 상도 금호지구 택지조성사업비 실시에 관한건입니다.

본건은 8월16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왔는데 이것을 건설재정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체비지매각사업 실시에 관한건입니다.

본건은 9월18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분담금 징수조례제정에 관한건입니다.

본건은 9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와서 이것을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건입니다.

본건이 9월21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왔는데 이것을 교육재정 예결에 심사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세 징수사무 이관에 관한 건의안 제출의건입니다.

본건은 9월18일자 문교위원회에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왔는데 이것을 그내용을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보고사항에 들어가서 제주도 시찰한 보고를 김규원의원이 나와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의석에서 ○장의순 의원; 의장 그전에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순 의원;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또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몇가지를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보고 말씀 들어서 동의를 얻을까해서 나왔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원서류 취급에있어서 그양식이 區區했고 진

정서 청원서도 區區各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자치법에 엄연히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소위 자의 제멋대로 해가지고서 그대로 들어온것을 그래도 우리는 민원서류라고해서 그대로 접수해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일을 기하기위해서 반듯이 그청원서에는 청원에 대한 주문 거기에대한 이유 그리고 청원인의 주소 직업 연령 이것은 엄연히 청원서 취급에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2인이상의 시의원의 소개 엄연히 하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양한것이 많이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에대한 찬성자 성명 날인 이것은 완전히 구비한 서류래야만 우리가 완전한 서류라는것을 인정하고 취급을 해주시면 민원서류취급하는데 통일을 기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자체 42안에 해당하는 소위소송중에 있는것 혹은 법에 저촉되는것 혹은 국가를 모독하는 언사가 있는것 이러한것을 고려치않고서 그냥 접수되는 민원서류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것도 철저히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서 완전한 민원서류를 갖추는것에 한해서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서 각지방 도의회 시안을해서 우리시의회 발전을 기하기위해서 지방의회를 시찰한 그 보고를 여태까지 하지않았습니다.

이제 제주도 의회시찰을 김규원의원께서 보고하시겠다고 해서 제가나왔는데 그것은 구태여 오늘 보고를 해주십사하고했

는데 아직 완전한 준비를 하지못한분도 계신것 같아서 우선 제주도 한건만 여기서 보고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루 종일 이것을 할것같으면 지루한 감도 있을터이니까 내일 네건 모래 네건 오늘은 제주도 내일은 경남북 충남북 모래는 강원 경기 전남북 이렇게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실분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나와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권 사전 배부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의회가 애당초 처음에 개최되었을때에는 방청권을 내일 방청권을 오늘 사전에 의원들한테 배부해드렸습니다.

그후에 그것이 없어져서 흐지부지하고 말았는데 기실방청하고싶은 사람들도 방청권이없으면 못가지않는가?

하는 그런것이 있어서 오지않는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부터는 내일 방청권을 오늘 반드시 의원들에게다 적어도 한 5매씩 전에 배부해서 될수있는데로 많은 방청객들이 와서 방청할수있도록..... 엄연히 할수있는 문제이고 실지로 해주므로써 방청할수있는 기회를 열도록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꼭 계속되는 회의에 있어서는 사전에 방청권을 매의원당 다섯장 정도로서 분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의순의원이 한말씀에 대해서 각도 시찰한 보고를 오늘에 다할것이 아니고 3일간 나누어서 보고하는것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루하면 듣기가 무엇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여기 보고사항에 돌아온 순서대로 기회를 들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시찰보고를 접수했는데 김규원의원 나와서 제주도 시찰에 대한것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이 지방시찰보고를 전번임시회의에서 당연히 해들었어야할것인데 당시 의장 기타 상임분과위원장선거로 말미암아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의회로 遲延筆硯된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드리면 지루한 감도 있고 시간도 너무 허비를 하고해서 대단히 미안한 감이 있어서 될수 있는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지난달 8월8일 일행이 7명 갔습니다.

이행득의원 이원옥의원 김석근의원 최인호의원 최봉수의원 또 본의원 이일행 7명이 8월8일 오후에 공군본부의 호의로서 비행기편을 이용해서 출발해서 출발한지 두시간 5분만에 무사히 제주도 모실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시간에 160마일정도로 두시간 5분만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이 7의원이 전부가 다 제주도 초행이기때문에 대단히 흥미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찰을 한것입니다.

전부 도착해가지고서 떠나는날까지 일주일동안을 제주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니까 제일첫째 놀란것은 여러분이 잘아시는 제주도의 삼다라고하는 돌이 많고 부인네가 많고 바람이 많다고하는 이 삼다라고하는데 제일 우리가 눈에 띄이는것은 돌입니다.

역시 돌이 어떻게 많았던지 상상외에 밭과밭사이에 그..... 경계라고 할까요를 전부 돌로 썼어요.

논이고 밭이고할것없이 전부 돌로 썼습니다.

그리고 집이 울타리라고 하는것은 전부 돌로 썼습니다.

그높이가 전부 1미-터이상 그것이 현모암으로 까만고석도
입니다.

사람은 열사람은 별로 못봤는데 들은 전부 열었습니다.

도착한 그날로 제주시를 버-스편으로 가서 그날 저녁에 제
주시에 갔습니다.

그 이튿날 제주도의회를 방문하고 강의장을 다행히 만나가
지고서 제주도의회의 제일연소한 의원인 송봉규의원안대로
일주일동안을 대단히 폐를 많이 끼치고 왔습니다.

제주도개역을 잠깐 말씀들이면 제주도면적 130입방미 우리
나라전체면적의 약100분의1이 조금 약합니다. 인구가 26만
제주시가 인구가 6만으로 되었습니다.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게된 원형인데 일주로..... 제주도를
한바퀴도는 일주로는 있는데 그것이 약 2백키로 5백리가
량 되는 거리올시다.

주로 이 산악방면을 많이 구경했는데 제일 놀란것은 한라
산이 중앙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기전에는 상상외
에 굉장히 높은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상상외에 작은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그러나 우리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올시
다.

그리고 평야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평야가 많은중에도 농지가 약 4만5천정步 아직 지금 미개
간지가 약4만여정步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외에 대부분이 평야가 많이 되었습니다.

평야라고 그러지만 약반수는 농경지로 되었고 반은 미개간
지로 되었습니다.

반수되는 4만5천정步중에 농작물이라고 하는것은 주로 보
리 조 콩 고구마 고구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양식으로 제주도시민 26만명이 약8할의 식량을 자급자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할은 역시 공무원배급을 주로 본토에서 갖다가 2할 모자라는것을 충족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개 눈에 띄이는것을 역시 조나 보리 콩이 많이 떠지만 이고구마로다가 전분공장…… 가공을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본토로 냉면이나 과자원료로 보내는 가공공장이 26개소 있었습니다.

또 공장이라고 하는것이 대부분 고구마가공공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있고 그남어지 공장은 유명무실 혹은 휴가상태에 있다싶이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토에서 보기 어려운 미강 꿀과수원을 흥미있게 봤습니다.

제일 남방에있는 서귀포에서 은주 밀감 한일밀감을 봤습니다.

한일 밀감 제주도내에서 생산하고있지만 은주 밀감은 서귀포근처가 아니면 어려운것입니다.

이것이 1년에 두가지 합해서 약4만관 생산된다는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아까 고구마 생산은 1년에 약1천5백만관 본토로 가공해서 보내는것이 약6백만관 그외에 말이많다하지만은 약 도내에 9천두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가 약3만두 이것을 다뜰에 내놓고 목에 아무것도 걸지않고 뜰에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왕눈에 띄였습니다.

산업방면에있어서 더좀 말씀을 상세히 드리고싶은데 시간을 약하기 위하여 대충 이 정도로 끝이겠습니다.

행정면에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내에 시가 하나밖에없고 군은 남제주군 북제주군 두군데 있습니다.

인구를 분포를보면 제주시가 6만 남제주군이 10만 북제주군이 10만입니다.

도청은 지은지 얼마않되는 신건물이 따로 떨어져있는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행정청이고 ○○에 보니까 내무 문교 사회 산업이외에는 별로 다른 국이 없어요.

의회도 역시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로 예결산위원회 징계위원회 다섯 분과위원밖에 없습니다.

도청 역시 내무국하고 산업국 또 총무국이라고하는것이 있고 문교사회국이라고하는것이 있습니다.

대개 의회에 가서보니까 김상흡의원이 제주도에 피난해서 도의원으로 계실적 그건물은 현재국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전에 다른데에서 쓰든 조그만 건물은 도의회의 의사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석이 전부 15석 거기에 잠깐가서 개황을 조사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서부터 8월30일사이에 개회일수가 전부 40일 또 의안처리사항을보면은 예결산에 관한것이 다섯건 조례안이 10건 건의안이 16건 기타 결의사항이 7건 또 청원서하고 진정서 처리한것이 12건 그남어지에 관계된것은 7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역시 도정감사를 금년에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10일간 또 주무분과가 셋인데 세분과위원회에 열다섯의원이 전원이 거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의회에서 짐차를 두 대 편의를 봐주고 또 도의원이 한분 전임해서 우리와 같이 다니면서 안내해주고 이래서 특히 호의를 많이 베풀어서 주고해서 덕택으로 우리가 상세히 시찰하고 왔습니다.

그 점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도의회에 감사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추후에 여러분께서 지상을 통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명승지라고 할까요. 다니면서보니까 폭포수…… 폭포수가 서너군데 큰데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보기어려운 육지에서 바다물로 떨어지는 폭포수는 우리가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여러의원들 지루하실테니까 그넘어지는…… 아 제주도 도의회에 관계되는 예산 그것이 8백5만환으로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예산이 1년에 8백5만 이것을 잠깐 빠트렸습니다.

그넘어지 미심하신것은 이다음 기회에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김동순 의원; 이번 지방 시찰에 있어서 특히 집행부에서 거대한 시비를 주어서 참 그야말로 부자유스럽지않는 여행을 하게된것을 특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1만7천원을 가지고 여드래동안을 걸려서 수록 3천리에 가까운 여행을 하고왔는데 가기전에 집행부를 비롯해서 각신문 보도라든지 대단히 가서는 안되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있는 말 없는말을 참 그야말로 전국방방곡곡에 철렁을하느냐 해수욕 혹은 피서행을 하느니 가진 기사 가진 여론을 이르켜가지고 못가게끔한 이 무렵에 일단 남아로서 한번 결의한것을 감행하여야겠다는 결의하에서 갔다왔는데 어느도에 갔다온이나

다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드니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같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장래에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에 시찰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예산면에 있어서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7천원을 가지고 갔다오는데 우리들이 적어도 한사람이 56만환 사재로 썼습니다.

떠나기 전에 신문 기사를 보면 여러분은 혹은 방청객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5만환을 주느니 얼마를 주느니 여기에서는 말도 없는데 결국은 이러한 시의원 전체에 명예에 관한 신문 보도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정도에 이러한 명예 훼손을 당한 것이 올시다.

특히 때마침 민의원 김상돈의원에 강연 방해 사건…… 역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영토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고 장소를 자유당에서 23일30일까지 독점하고 이러한 것을 제주도까지 가서 볼때에 내눈에서 눈물이 났고 내 가슴은 그야말로 무엇이라고 형언하기가 어려운…….

이것도 언론의 자유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있느냐 없느냐 의심한바 올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왔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주도의 행정면이나 의회운영보다도 제주도에 까지 가서 대한민국의 민의원의 행동이 이렇게 부자유스럽다는 환경에 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꼴악선을 보고 대단히 유감천만히 생각한바 올습니다.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여행을 보내 그것은 사용으로 가는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공용으로 서울시의회가 간다는것을 인식해가지고 무전취식으로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제주시 시찰의 보고를 자세히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수길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길 의원; 지난 21일 월남오대통령을 환영하는 고서울 특별시장의 환영이 반도호텔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시민을 대표로한 서울시의회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며 또 거기에대한 한마디를 드리지않으면 안되기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문제에대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외무부장관이 절차간소화하는 의미에서 민주당출신인 장부통령으로 모시자 이렇게 답변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全般 고서울특별시장의 역시 서울시의장및 부의장을 반도호텔에서 오찬에 참석시키지 않았는데 역시이것은 하나의 절차를 간소화시켰기 위한것이나 그렇지않으면 하나의 정책적인 여당에 의해서 이것을 참석시키지않았느냐 이런것을 의심에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두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의원이 아니라 서울시민에 일원으로서에 우리내 시민에 납세자에 입장으로 볼때에 시의장이 고시장과 합석해서 국민을 환영하는 그화기탕탕

한 정 담고 그야말로 우리시민에 입장으로 볼때에 또하나 이것이 과연 잘되어가고 있는 세금을 또 바치고 있는 그보람이 있지않을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시의회의장및 부의장을 참석시키지않고 그것을 그경비를 절약하는 알뜰한 살림보다도 의장및 부의장을 참석시키도록 화기탕탕하고 아리따운 그방향으로 나가는것을 볼때 우리시민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세금을 바치고있는 보람이 있지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것은 추후로 나올것으로 믿고 우선 그러한 시장이 베푸는 오찬회에 서울시의원으로 참석치 못했다는것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유감에 뜻을 표하는 한마디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박명준; 오늘 이보고하기로 되어있는 지금 통지서가 모두 일곱건입니다.

될수있는데로 후에 간단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학우의원 보고해드립니다.

○문학우 의원; 그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진정서 및 청원서에 결과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정서및 청원서처리 심의보고를 하기전에 사회국장 나와 계시니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문등병 환자에대해서 시당국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서울시외로 수용하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자에 와서 서울시에 나병환자가 대단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을때까지 도심지를 그렇지않습니다만 변두리에가면 촌락으로가면 그나병환자들이 不顧廉恥하고 말려

드는 그런 폐단이 많이있습니다.

나병회가 좀기능을 발휘해서 서울시내에서는 한사람의 나병환자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4290년8월9일 접수한 중구인현동시장 조합장 백승원 외 29인으로부터 접수한 진정서인데 그진정서 내용은 시장철거 요청한 진정서입니다.

명보극장이 완성됨에따라 극장이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달라는 구두 진정있기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집을 지어놓고 서울시에다가 철거보류 진정서를 냈습니다.

당시에 사회보건위원장인 홍성유위원장과 본인이 두사람이 현장에 참석해서 현장을 조사해보았드니 그시장을 그대로 존속시켜도 극장운영상에 하등 지장이 없기때문에 철거를 보류해달라는 진정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단기4290년 서울시의회 제80호로 접수한 대한노총 서울택지구 자유노동위원장 고영위에 진정서내용인데 노동조합시행에 관한 진정서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자체에서 해결할수있는 문제임으로 본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탓하지않고 이것은 각하시켜읍니다.

단기4290년6월25일 접수한 대한상의용사회장 김상봉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인데 식육운반에 관한 운영권문제인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된 문제임으로 역시 본진정서를 각하했습니다.

단기4290년7월29일 접수된 행촌동지구 부흥주택입주피해대책위원 우서구의 12인으로부터 제출된 재건주택 배정에 있어 당시에 주택조합위원장이며 당시동장인 김호정이 불법으로 주택건축비 천여만환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대한주택영단에다가 납부하지 않고 착복을 했는데 그후에 대한주택영단

김호정과 직접 현금거래를했으나 대한주택영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수없다고해서 차진정에 대해서 가옥 명도를 내리겠다고하는 이것을 적당히 조치해 주십사하는 내용의 진정입니다.

그러나 당지에 동장이든 김호정은 이미 횡령죄로 형사문제에 개재되고 마포형무소에 복역중이기때문에 진정서를 각하했습니다.

단기4290년8월3일에 접수한 사회사업연합회애린단장 장충식이 제출한 진정서인데 이것을 시유지를 대부해달라는 진정서입니다.

진정서는 들어왔는데 조사에 대상이 없어요.

이름만 써가지고 왔기때문에 조사 불가능이기때문에 본진정서를 각하했습니다.

단기4290년8월25일에 접수한 서울특별시 동구조합이사장 만용하외 102명으로부터 드려온 진정인데 내용인즉 동구조합거리 제한및 허가서류조합경유에 진정내용인데 서울특별시가 본동구조합을 인정하면서까지 8월14일날자로서 일반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거리제한 대해서 인정하면서 행정행위상이 모순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해서 본건심의하기로 인정을해서 무허가업자에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단기4290년7월26일 접수한 서울특별시중구남창동 김변구외 43명으로부터온 진정서인데 서울역을 기점으로 장충동에 이르는 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천막집 판자집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인데 이것을 현재공사주변에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철거가 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은 각하했습니다.

단기4290년도8월22일 접수한 사회사업 장충 모자원 이귀

옥외 4천5인에 진정서인데 본진정서는 시유건물을 모자원에서 사용하고있는데 근자에와서 본건물을 불하한다는 품문이었으니 전쟁에 남편을 잃고 생활을 유지할수없는 사람을 이저버린 지금부인네들이 어린아들을 대불고 본모자원에서 생계를 유지하고있으니 이와 불하한다면 딘사람에게 불하를 하지말고 본모자원에 불하해주셨으면하는 이러한 진정서내용입니다.

심의한 결과 역시 본건물을 장충모자원에서 불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단기4290년8월25일접수한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의4번지 홍광식의 55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울시다.

그내용은 중구에 거주하던 철거민들이 보광동에 자리를 옮겨서 집단생활을 하고있기에 공동변소가 이번 장마로 말미암아 전부 유실되어 공동변소를 앞으로 사용하지못하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기때문에 금반 조사한 결과 전공동변소를 철거시키고 그 장소에 일개소를 건축해주는것이 타당하기때문에 본건 역시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단기4290년9월10일 접수되어 양동화재이민회일동253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재민들에게 치료 대책을 해달라는 요청이올시다.

본건은 즉시 집행부에 연락해서 현재 무료로 치료해주고있습니다.

단기4290년9월10일접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정동28번지 송경복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 본건은 이화여고인근에 무허가건물이 서있는데 교사를 신축하려고 자기대지와 하등관계가 없는데도 본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특별시장과 서대문경찰서장에게 낸바 이렇게 되어서 집행부에서

대지 사용허가가 되어서 한동안 철거의위기에 놓여있었는데 본위원회에서 청원서를 심의한 결과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철거에 상당한 보상비를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쌍방의 합의를 보아서 철거보상비용 2백20만원으로서 합의가 성립되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단기4290년9월11일 접수한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 강봉식의 167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유엔군 군용도로로 인하여 철거되는 430인이 철거를 보류해달라는 진정서내용이었읍니다마는 본대지가 원래 군용지이기때문에 유엔군 군용도로로서는 다시없는 중요한 중요성에 감하여 철거하는것이 타당하기때문에 집행부에 긴밀한 연락을해서 한남동에 1천7백평을 알선해서 일전에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그간에 본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을 오늘 보고하는바입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건설분과 이익렬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익렬 의원; 지방자치법 147조3항에 의지해서 건설분과 위원회심의결과를 여러분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중구 남창동 환지 불평진정건입니다.

청원인주소는 중구남창동 135인의 3필에대하여 환지불평과 시집행부처사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사위원 이익렬과 김재순의원의 조사를 가보고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처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평화고무공업사 이전보상금 청구건입니다.

조사위원은 전중남의원 김재광의원 이익렬 3인이 조사했습니다.

청원인의 주소는 서대문구순화동2의 평화고무공업사 김고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평화고무공업사대지보상금잔액을 요구하여 겸하여 공장기구기재 이전비 요청의 건입니다.

그리하여 조사하여 심의한 결과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풍치지구해제청원건입니다.

조사위원은 전중남의원 김재순의원 두의원입니다.

조사한 결과 돈암동509의1의 5필에대한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건축대지로 사용코저하는 진정서 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풍치지구에다가 기허 무허가건물이 난립되었으며 도시계획에 의하여 기각의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창동205 지상 무허가 판자집 철거 보류진정의건입니다.

조사위원은 김재순의원 이익렬입니다.

중구남창동 205부근 일대에 무허가판자집을 강제철거함에 있어서 이를 보류하여 달라는 진정의 건 입니다.

본건은 기일이 만료됨에 기각결의 했습니다.

다음은 전차수리비 요구탄원서입니다.

조사위원은 김석근의원 김경원의원 탄원인주소는 종로구청진동 239번지 이것은 탄원인이 운수사업청 전차수리도급은 완료한지 일개년이 되도록 청산지불이 지연되었으므로 빨리 완료해주십시오 하는 촉구 진정서입니다.

본건은 채택해가지고 결의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초동106번지 후생주택건설입주요망 진정의 건입니다.

중구초동106번지 박창규외 12명이 초동 106번지 가설 건

물입주자등이 후생주택혹은 아파트 건축을하여 입주토록 요망하는 진정의 건입니다.

본건은 소송을 하고있기때문에 그소송이 해결이 나지않는 이상에는 결정할수없다고해서 기각의결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창동시장주변 무허가관자집철거요청의 건입니다.

보류해 달라는 신청도 있고 또 철거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채택해서 심의한 결과그것은 날이 가므로서 자동적으로 철거하기때문에 요구해서 집행부에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남창동21번지의 지상건물철거보류진정의 건 조사위원은 이익렬 김재순 중구남창동 21번지 이성근외 13인 중구남창동 21 22 25번지 지상건물 강제철거를 보류하여달라는 진정의건입니다.

그러나 철거완료가 이미 어느정도되어있기때문에 우리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전 얘기도 해주었고 시행해 주었기때문에 잘 결의가 되었다고보아서 전부 8건 사회위원회와 어느정도 합의한 진정내지 신청이라고 보아서 이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고의 건이 아직많은데 이것을 오늘 다하자면 오전회의는 다른 것을 할수없을테니.....위원회의것이 한건 남았습니다.

재정위원회의 처리의 건에대해서 보고만듣고 다른보고는 내일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재정위원회의 보고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노승환의원

○노승환 의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진정서및 청원서 처리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단기4290년9월16일자 제출자 박신옥외 1인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수반된 환지를 달라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이문제는 본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소관사무가 아닌 관계로 반려를 결의했습니다.

90년9월17일 영등포구공설시장대표 김봉성으로부터 점포사용료를 인하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입니다.

본건에 대한것은 회의규칙 48조3항으로인해서 전체 서울시공설시장사용료 요금내지 전체요금이 일정한 규칙의 법률로 되어있는 관계상 본건만을 인하할수없으므로 기각처분을 했습니다.

9월16일자 본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사장 이천봉으로부터 버스노선을 환원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냈습니다.

본건은 현서울시건설국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운전사업청의 시영빠스를 경매입찰할시에는 과거에 그노선을 본신여객에서 사용했던 연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다시 환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있는 시영빠스는 매각내지 경매처분을 하고있지않는 이상 본건은 기각처분했습니다.

동대문구용두동21번지 박한중외 3인의 사유지대부요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해서 본건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진정인으로부터 제출한 요지에 잘해달라는 요지로서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다음 9월10일 흥일토건주식회사 사장강온구로부터 제출된 시출입업자및 차압건보상금에대한 반환요구신청진정서에대해서는 본분과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심의내지 서울특별시의회

자체로서는 작년도 시의회가 구성된이후에 시정감사로서 만리동배수공사의 도급업자로 되어있는 흥일토건주식회사의 출입해제및 반환금을 반환할수없을것으로보아 동진정서도 청원서도 기각처분했습니다.

사회사업연합회 김경인단장 장충식으로부터 흑석동시유지 600평을 대부해달라는 진정서인데 현재 서울특별시 집행부자체가 동대지에 다른 앞으로의 계획문제가있는 관계로서 동진정서도 기각처분했습니다.

전농동587번지 정남현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귀속재산에 대한 대지 반려에 관한 청원서에있어서는 본건은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앞으로의 본내용의 상세한 말씀을 시간관계상 여쭙지못합니다마는 집행부의 관계직원들이 있는것으로 되어있는문제이기때문에 본건은 회의규칙 48조1항을 통해서.....아마 어느정도 이자리에서 말씀드려드립니다마는 본건은 추후에 본의사일정에 올려 아마 본회의에서 심의할 이러한 결의를 재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다음에는 9월16일 마장동231번지 김덕조의 50인으로부터 가축시장 이전지철거민에대한 진정서입니다.

본건은 집행부와 유기적인 연락을해서 앞으로의 철거문제라든가 가축시장 이전으로 인하여 본철거민들에게 속하는.....

집행부자체가 이시간까지 많은 여러가지 편리를 보아주고 그장소를 철거하지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형편에 노여있기때문에 또 관계진정서내용을보거나 관계진정인이 여러가지 모 든면으로 보아서 현재 집행부 자체에서는 많은 혜택을 해주 었다는데 대해서 본건도 기각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시간관계로해서 여러가지있습니다마는 8건만 여러분

들에게 보고합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보고사항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이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의장 이중구; 제3항 각상임위원회의 위원선거에 관한건은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장의원 말씀해주세요.

3. 각상임위원회위원선거의건

○장의순 의원;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14일날 의원총회…….

비공식회의이지마는 우리의원총회에서 이미 논의한바도있고 대개 누가 어느분과로가서 일하게 되었다는것은 결정된 사항이라고보아서 운영위원장께서 그 명단을 나와서 발표함으로써 시간관계도 있고하니까 통과시키는것이 어떨까해서 좋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중구; 좋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명단을 낭독하십시오.

○김상흡 의원; 지방자치법 제31조 또 서울특별시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해서 각상임위원회 위원소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위원회

박수형의원

노승환의원
이행득의원
김주홍의원
임종순의원
홍성유의원
방동석의원
○산업위원회
한상기의원
강을순의원
이종원의원
이갑수의원
김인기의원
홍용준의원
김수길의원
○건설위원회
이동률의원
김재광의원
김석근의원
전중남의원
김경원의원
이익렬의원
김재순의원
태 수의원
具喆會의원
○문교위원회
홍순우의원
신사회의원

정태희의원
김규원의원
김준식의원
이원옥의원
○내무위원회
김제운의원
신종수의원
박명준의원
김항복의원
이중구의원
이응린의원
김동순의원
장의순의원
조영석의원
○사회보건위원회
박승목의원
문학우의원
이원찬의원
김상흡의원
조기항의원
이기환의원
최인호의원
○예산결산위원회
김주홍의원
김인기의원
임종순의원
방동석의원

강을순의원
이갑수의원
김재광의원
김경원의원
김재순의원
정태희의원
김규원의원
이원옥의원
김항복의원
이응린의원
조영석의원
문학우의원
조기항의원
최인호의원
○운영위원회
김상흡의원
장의순의원
이원찬의원
이행득의원
김중남의원
이종원의원
김동순의원
이익렬의원
신사회의원
김수길의원
○징계자격위원회
최종욱의원

김석근의원

김진용의원

김준식의원

이기환의원

신종수의원

최봉수의원

具喆會의원

홍용준의원

홍성유의원

노승환의원

이상 보고드립니다.

혹 착오점이 있으시면 차후라도 말씀해주십시오.

○부의장 이중구;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상임위원회위원은 가결되었습니다.

여기 긴급동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월남오대통령 시장초청 오찬식개최에 관한건」본건에대해서 제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없으신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안설명을 김제윤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 의원; 제안에 앞서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려고하는 것은 이본건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보조기관인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는것보다 시장이 이답변을 해야되겠어요.

나로서는 답변여부를 들은 연후에 우리가 여기에대한 법을 정확하게 행세않하면 앞날의 우리 시의회를 운영하는데 권위

내지는 위엄문제로서 어떻습니까? 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소」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중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것을 시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할텐데…….

(「제안설명만 해요」하는이 있음)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요」하는이 있음)

(「부의장도 중소」하는이 있음)

○김제윤 의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월남오대통령 시장오찬 초청에 관한건의 질문입니다.

방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수도 서울시에서 월남대통령을 초대하여 오찬을 베풀다는것은 좋거니와 이초대에앞서 시민참가범위의 그근거가 석연치 못함으로 모처럼 성스럽게 초청된 내용을 알고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제로 이렇게되어있고 지금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얘기는 월남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우방국가의 원수로서 세번째 마지하게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월남국은 아세아반공진영에서 한국과같은 비참한 시련을 거듭하고 있으므로해서 오늘날 한국방문은 역시 의의가 중하다는 이사실은 부인 못하는것입니다.

그런 결과로서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역시 이러한 일에있어서 다같이 조건을 굳게 맺었든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수도서울의…….

우리 서울시에서 오대통령을 초대해가지고 오찬을 베풀고 서로 간담을 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모든면에 있어서 다같이

이 조건을 역시 구계 가진다는것은 대단히 의의가 깊다는것을 말씀해 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안한 의도는 이오찬을 개최한것이 결코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의도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참가할 수 있는…… ㅁ는 민간인 기준이 올시다.

그러나 한국인측에서 소위 참석한 범위를 아는대로 말씀을 들인다면 오공보실장 김외무부장관 윤서울대학교총장 이세근상공회의소 會頭 札鎭恒아세아반공연맹이사장 이분들이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못한분들로서는 장기영중석사장 최덕신월남공사 이철원공보실장이며 김법린자유당원내총무가 출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범위로 해가지고 월남측과 합해가지고 28명이라는 수자로서 반도호텔에서 오찬회를 개최했던것입니다.

반듯이 지방자치단체의장인 서울시 시장이 이런 성스럽고 거대한 오찬회를 연다고 할진데에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오찬회의 의의가 중차대할진데는 더더군다나 우리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마땅히 참석하고 초대해야된다는것을 말씀안들일 도리가 없는것입니다.

시방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것은 집행기관만이 존립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라고 지방자치법에 대있는것이 아니라 엄연히 의결기관인 의회가 존립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기집행할수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는결로해서 의회의장에대한 예절상은 물론이려니와 사실상 가지고있는 그위치까지도 피하고있다는것입니다.

모일간신문을 보건데 기자질문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참가범위는 어떻게 되있을」 하는 질문에 대해가지고는 위에서

알아서 온일이기 때문에 알수가 없을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사람은 그위라는것이 어데가 위가 되가지고 시장이 지시를 받는지 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권까지 그런범위까지 이중양이라는데…….

시장은 얘기하는 위에서 마음대로 간섭할수있는 성격인지 이거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울뿐外라 고시장자신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다 몰아서 자기책임을 불명확하게 하는것은 보통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알수가 없는것입니다.

故로 비단 오대통령 참석한 기회뿐아니라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걸로 믿는데 이런결과를 몇번이고 되풀이해야만 마땅한 도리로 시장은 생각하고있는지 이것조차도 이사람이 걱정하고 있는것이며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읍니다만은 이게 초대간소화일주의를 채택한 결과라면 이제 얘기한 여기 주욱 연명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러한 한국측인사를 초대하는것만이 간소화제일주의를 채택한것이고 또 이사람만을 초대하는것이 오찬회의 중요의의가 있는지 또 서울특별시장을 초청해야만 그의의의가있는지 요것이 못마땅하게 되었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의장을 참석시키지 말자는 어떤 지시를 받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래서 본의원은 석연치못해서 이안건을 제안해서 여러가지각도로 미루어가지고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겠다고해서 본의원외 29명으로서 제출한것입니다.

순서없이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구; 장의순의원께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장의순 의원; 본래 긴급동의가 올라오면 제안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보충설명이 있고 다음에 채택하느냐 안하느냐해서 채택한후에 질의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채택이 무슨 채택이냐 의제에 올랐는데 하는이 있음)

(장내소연)

좋습니다.

잠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회가 구성된후에 오늘날까지 일년有餘가 지났는데 항상 본의원의 생각하기를 오늘날까지 외빈이 허다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서울특별시를 대표해서 시장께서 나가서 꽃다발을 들였고 행운의 열쇠를 올린사실을 알고있지만 섭섭하게도 우리의장이 나간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왜그렇게 되고있는가를 의아스럽게 생각하던 나머지 본의원이 이번 운영위원회에 자리를 잡게되서 그것을 물었든것입니다.

지난 9월18일 시장비서실에 「과거에는 시장님이 외빈환영을 나갔는데 의장은 왜한번도 안나갔는가」 또 「어떠한 수속을 밟아야만 나가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드니 박비서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사람이 「이것은 외무부에서…… 상부에서 연락이 시장앞으로와서 우리시장만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외무부의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으니 「서울특별시장한테 연락하면 의례히 의장에게 연락해서 같이 나가리라고 믿기 때문에 시장에게만 연락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별도로 연락을 할라면 연락해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비서실에다 전화를 다시했습니다.

외무부의전국장말씀은 이런데 과거를 논하지않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의장님이 반듯이 출석케 해달라고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21일날 시장주최로 월남대통령초대 그명단에 의장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실에가서물으니 「외무부에서 지시한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해요.

그래 그럴수가 있나 남의집에 감나나 대추나라 하는격으로 어디 그런법이 있느냐하고 의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분이 대단히 노해서 「우리가 그럴수가있나 우리가 간접할수있나」하길래 직접 차를타고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외국손님은 영접관계만 보는것이지만 한국손님에 대해서는 시장이 모시는것이니만큼 시장이 책임졌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국내빈을 초청하는것은 시장권한에 맡겼던 것입니다」해요.

그리고 반도호텔에다 자리를 만들기를 설흔여섯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국과 외국에서 나가는 사람하고 스물여덟사람밖에 없는데 설흔여섯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추후에 추가초청할분도 있고해서 설흔여섯을 만들었습니다.

도중에 여러가지 얘기가 있고해서 시에서 의전국에다 내무국장과 의장을 추가해서 요청도 있었다고해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외무부에가서 이명단에 의해서만 하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총무과장 불러서 명단을 가져오라 명단을 가져와서 보니까

한국측 열사람 저쪽에서 열여덟사람으로 되었는데 왜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는 역시 외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해서 명령 좇아서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외무부에게서 물어본즉 그것과 아주 판이하다 이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우리의장은 빠졌든것입니다.

항시 의회에 개회나 폐회 나오실때에 시장의 인사의 말씀을 우리가 일치단결해야되겠다 긴밀한 연락을해야되겠다 말로만 떠들고있으면서 그실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않고 있습니다.

家和에 萬事成이라고 掌에 難鳴입니다.

외손뻑에 우는 법이 없습니다.

암만 시장이 잘할려고 그래도 우리의회에서 뒷받침을 잘해주고 받들어주어야만 일이 될텐데 의장 하나 나가서 거기에 무슨 방해가 되느냐 그말이에요.

엄연히 외국 손님 오실것같으면 저 의장님 같이 나오십시요.

시의회의장과 시장과 한자리에 가지런히 나가서 악수를 눈으로하는데 얼마나 좋으면 그말이에요.

서울시는 시의회가 우연일치되어서 잘 된다는말을 들을망정 아마 시장고재봉씨가 시장을 모시고 나왔다고 해서 왜의장을 모시고 나왔는가하는 말을 들을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졸렬한 수단 이런 약은 수단 아마 시의장을 모시고 나올것 같으면 왜 야당 인사를 모시고 다니는가하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정신으로는 옳바른 정치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외무부에서는 한국측 초대권을 시장에게다 일임했

다 확실히 의전과장 말했습니다.

이러한것을 가져다가 어물어물 구령이 담넘어 가듯이 외무부에서 그랬습니다.

무얼했습니다.

책임 회피 있을수없는 도저히 용서할수없다 말씀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사람들이 가져오는 「프라스」가 있느냐 「마이너스」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때에 이것은 「마이너스」가 있으면 있었지 「프라스」가 하나도 없다는것을 왜모르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이문제는 앞으로 그냥 두어둘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문제같지만은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와 의회가 혼연일체되어서 잘해나가느냐 못해나가느냐 이러한 소소한 문제를 계기로해서 능히 할수있는 문제를 고의적으로 안했다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것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실지로 알아본결과 보충설명 드러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는것입니다.

○부의장 이중구; 본건에 있어서 정식으로 채택이 되지않았습니다.

먼저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나 본건에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책임자가 국제체육단의 초대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문제는 이다음 순서로 미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의사진행을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의장님께서 답변할분이 안계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이 부시장도 괜찮다 이런말씀이 있었는데 부시장이 지금 나갔으니깐 안된다 이것인지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안된다 이것인지 이것을 구별해주십시오.

부시장이 나갔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더구나 말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이 계시리라고 믿고 부시장이 이것을 답변해주실 것으로 이대로 계속해 주실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시는 있음)

○김경원 의원; 이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장 고재봉씨한테 책임 소재를 묻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반도호텔에 오찬석상에서는 부시장을 제거한것입니다. 부시장도 제거된 한사람입니다.

그사람이 나와서 책임있는 말을 못할것입니다.

특히 이문제는 우리가 시장을 이자리에 나오게해가지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점을 생각하셔서 시장이 이자리에 나온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질의를 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좋소」 하시는 있음)

그렇다면 우리가 회의시간이 한시까지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제로 돌려서 토의하시고 이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이 오후회의에 이자리에 나오겠끔해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구;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소」하느이 있음)

그러면 그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 인가한 4개국민학교 개교 불능에대한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질의건 이것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제윤의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인허난3개국민학교개교불능에대한책임소재규명에관한질의

○김제윤 의원; 이조건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역시 본건은 교육감이 지금 안계십니다.

얘기를 듣건데는 관리과장이 나오셨다는 말을 듣고 역시 이문제가 비단 교육위원회에서만 관련이 되는것이 아니고 집행부 산업국에서도 관련이 되는것인데 산업국장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제안에대한 설명을 먼저하는 가운데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문은 인가한 4개국민학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당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인 작년 3월23일자로 송신 묵정 도립등 3개국민학교의 신설을 인가하였으나 교사 신축 용지가 상급 가축시장이나 도살장으로 사용되고있거나 또는 대지에 난민들이 판자집이 철거되지않아 교사신축에 손을 대지못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관계당국인 서울특별시장이나 교육감은 본건 설립인가를한지가 勿驚1년반이나 경과한 오늘날까지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으므로써 개교를 하지못하는 현황이니 如斯한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교육행정에대한 진상

과 책임을 추궁하고자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본회의에 출석케 질문하고자함」

새삼스럽게 제가 설명 안하겠어요.

내용은 이러한 정도로해가지고 사실상 주무국에서 국민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는것과 나아가서는 무능한 결과를 심지어 학교를 인가시켜놓고 이시간까지 개교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가지고 그학교내에 아동은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타교에다 수용을 시키고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보고져 해가지고 본건을 제안할것입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다음 이익렬의원 말씀하세요.

○이익렬 의원; 4개국민학교라했는데 제가 보충이라고하는 것은 흑정국민학교를 가지고서 작년부터 고심하고 또 책임상 많이 생각했던고로 오늘날 이러한 기회가 오리라고 보았습니다.

이 흑정국민학교 두학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289년7월9일날부터 거기에 울타리라고 담을 쌓기로했습니다.

그공사가 478만환 공사비가 매겼던것입니다.

그러면 9월몇일까지 준공된다고 계약같이 했던것입니다.

그것이 지연이되어서 12월30일까지 준공하기로 했던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판자집을 철거조차 못하고 공사조차못하고 있습니다.

그공사를 단행했으려고 할적에 소위 거기에 철거하기전에 담을 쌓기전에 그저 4, 50세대가 있었고 커다란 기업체가 대여섯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흑정동에 소위 9 28수복당시에 황무지가되어왔기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또 대여섯개기업체는 엄연히 주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3, 4년전에 현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가 지금 여섯 일곱개 대단히 큼니다.

지금 주민이 작년에도 50세대지만 3백여세대로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것은 언제 철거하겠느냐 제가 불적에는 행정부에서 이론보다도 실천을 앞해주고 있다 그말이에요.

소위 집행부경찰이라고할까 천막을 철거해 놓으면 한번은 주의 시키는 모양같아요.

이런일은 주의시키는 모양같습니다.

3천환내지 5천환식받아서 울며 겨자먹는식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그냥 짓게되고 또 묵인하면서 오늘날에는 3백세대를 늘였으니…….

작년에 그 기공이라고 할까요.

소위 永히 국민학교에다가 재료와 목재를……세멘트를 어느정도 3할이상을 재단을해서 갖다 노았습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부패성이 있고 또 학교교정이 대단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러함으로서 시당국에 교육위원회에 이전하기전에 산같이 싸놓고 상당히 다니면서 해주십사 하였으나 빨리해주십시요 하였으나 작년에는 기왕에 공사를 못했으니 금년 3월말까지는 틀림없이 이전하는 동시에 기공을하겠소 하는 약속하에 오늘날까지 지연이 되었으니 과연 집행부로서는 이책임을 틀림없이 봐야하겠다고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발이 달도록 말했드니 요새와서는 미아리에다가 소위내지를 아무대나 닦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전에 딱고있는데 그것이 됴므로써 철거되며

기공도하겠다 교육위원회답변인데 이자리에서 보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따라서 황무지가된 그땅을 그냥 방심하기때문에 3백여세대의…… 기업체가 일곱 여덟개에 커다란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적에 과거에 관치행정 오늘날에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능하고 무계획하고…… 집행을 하였고 오늘날에 소위 행정이라고 난보아서 정말 내힘이되면 때리고싶고 말리고싶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양찰하셔서 이 기회에 이것이 꼭 달성되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일이 되고 또 학교가 되고…….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이 아니라 저 사실상 여러분에 소원을 하고 원하는바입니다.

많이 찬조해주셔서 요번 기회에 세국민학교가 달성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동석 의원; 여러의원이 아실지 모르지만 보충하기때문에 본의원이 긴급발언을얻었습니다.

이긴급동의안에 주문을 본의원이 진작 보았드라면 본 추가라고하는 이안건을 추가하였을텐데 미처 발의하신분이 발의에 첨가못했기때문에 이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로 말씀했습니다만은 안암국민학교문제올시다.

이학교를 짓기위한 약속에서 구구한 말씀으로 잘처리해주셨든 청소차량 이점에관한 건과 기타 여건등등을 합쳐가지고 이 안암국민학교가 세워지지않겠느냐…….

결정을보아 결의해서 되었던것입니다.

그 후에 교육위원회가 생기고 교육회에서 안건을 관할 담당사항이라든지 직접 이문제를 취급이후로 근일년하고도 한달이 넘는 오늘날까지 서울시의회 운영처리가 되었고 교육위

원회에서는 이것 가장 지역적으로 또는 지역적 환경으로보아서 제일 가능하다고 취급되는 안건이 아직 학교가 되지않는 것으로 문제가 지금까지 내려왔든 것입니다.

이주문에 송신 목정 도립으로 되어있는데 안암국민학교 문제까지 일괄 4개국민학교까지 문제들 종합한 질의를했으면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첨가동의하겠습니다.

안암국민학교문제를 추가질의하는것을 동의집에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이문제가 다 처리될것같습니다.

정식동의합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거기에대해 첨가해서 4개국민학교로다가 상정합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거기에대해 첨가해서 4개국민학교로 정정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의원 질의해주시요.

○문학우 의원; 4개국민학교교사를 짓기로되었는데 예산책정이 다되서 벌써 이것이 학교를 건축해서 아동교육을시켜야만 될것이에요.

오늘날까지 지연된 이유가 순전히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의 무성의에 기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한가지 예로서 금년 6월달에 목정국민학교 대지에 무허가판자집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정국민학교를 건축하기위해서 판자집을 철거하겠다고하니 철거를 보류해주시요 하는 진정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심의한 한사람으로서 몇마디 말씀드리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지금 실제에 목정국민학교지상에는 판자집은 없습니다.

거기에 있다고하는것이 자동차수리공장 미군폐품을 상대로 하는 불하상 재상 철물상 이러한 등등이 5개소의 소위 기업체라고할까 큰 거상들이 있는데 이사람들은 대개 몇 백만환식 자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줄을 삼아서 그근방에 약560호의 조그마한 천막집이 건립되어있는데 판자집 주인을 얘기는 그것이에요.

「큰것을 먼저 철거시켜주면 우리는 철거합니다」또 「국민학교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대지를 사용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하는것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7월8일 이 문제에대해서 집행부로 이송하고 거기에대한 적절한 조치 있기를 말했읍니다만은 오늘날까지 대지를 지우지않았다 지우지 않았다는것은 순전히 집행부에서 무의성의 결과라고밖에 볼수없어요.

그리고 이국민학교건립이 지연된 원인이 목정국민학교대지 위에다가 수백만환의 자금을가진 미국회발유 불하하는사람…… 소위 권력이 무서워서 철거을 못했는지 또 서울시가 철거할 능력이 없어서 철거를 못했는지 여기에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될것이에요.

여기에서 처리가 7월8일 집행부에 이송되었으니 80여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내버려두어서 지금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왈가왈부하는것이 폭로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의 5억5천만환 일시차입을 승인해주지않았음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예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대외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일시차입금을 승인해주지않으므로 아동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왔다는 이런 선전을 대외적으

로 해놓고 능히 할수있는 문제를 하지못하고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것은 교육위원회 자체가 그처럼 무능하다는것을 폭로하는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니 할수있는문제를 하지않고 오늘날까지 질질끌어와서 서울시의회가 잘못하는가하는 이러한 의혹을 주시는것은 삼가해주셔야 될것이에요.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이행득; 그다음에 조의원 말씀해주세요.

○조기항 의원; 지금 4개초등학교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의원은 특히 송신국민학교에 대해서만 간단히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기히 잘아시다싶이 송신국민학교는 지금 시영도살장소재지에다가 건축하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도살장을 옮긴다는것은 OEC관계가 있어서 약간 늦어질것 같습니다.

우선 송신국민학교에는 교장선생하고 교감선생님을 기히 발령해놓고 교장 교감이 어디에가서 자리를 부치 았을자리도 없으니 교장 교감 발령해놓고있는데 가축시장만이라도 우선 옮기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가축시장을 옮겨주면 거기에다가 우선 송신국민학교를 건설하겠으니 가축시장을 옮겨주십사하고 집행당국에 요청하고있는 모양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로보아서 마장동에다가 가축시장이 가기로 예정해놓고 그것에는 현재무허가건축이 약50세대가 들어있어 나갈때가없어서 못한다…… 이런다고 합니다.

물론 이 50세대도 우리서울시민이 올시다. 그렇지만 이50세대의 갈때가 없어서 못한다고하는 오늘 벌써 수개월이나

되도록 이대로 가만히 두신다고 하는것은 어디로보던지 물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까지 볼수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집행부나 교육위원회에서 성의가 부족하신 편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업습니다.

우리가 무허가건축을 현지를가보면 판자집도 오죽작게 지어놓고 그냥 천막같은 그런정도로해 온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철거를못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의무적교육 중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오늘 내일 차일피 일하고 있어서는 도저히 안될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국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단호한 조치를 해주십사하는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판자집 450세대가 있다고해서 의무교육에대한 국민학교 해야될 사항을 내버려두어서 좋다는것은 어디로보든지 隱當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往 돌아간일은 별로 추궁하지않읍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대해서 특별한 성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한것을 앞으로 어떻게하겠는가 만일 450세대가 갈대가없어서 못한다고하면 언제 까지라도 그대로 둘것인가 이대로 둔다고하면 교장 교감발령하는 것은 어떻게할 작정인가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이의원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이사람이 질의를 할려고하는 요점은 두어가지 있습니다.

첫째 집행부 부의장님이나 혹은 건설국책임이 좀나와주셔야겠어요.

왜? 이혹정국민학교 교지에대한 문제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철거해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는 교육위원회에다

가 믿고 왕왕 제가 실지 당무자들이 같이하는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사무한계가 어디에있는가 하는것을 묻지않고는 결과를 짓지못해요.

그렇기때문에 사무처에서는 속히 건설국장이나 부시장님을 불러주시요.

교육감님에게 묻고저하는것은 4개국민학교 특히 제가아는 바는 목정국민학교입니다만은 이국민학교 교장교감 두분을 발령해놓고 학교에는 판자집 일반점포가 잔뜩 늘어있어요.

거기에다가 학교간판도 없는데 교장 교감을 발령하는것은 어디에 있느냐하는것을 묻고싶은데 이교장교감이 교육위원회에 갈적마다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발령해놓고나서 운동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무슨 운동이나 말이에요.

교장이 학교를 담당하면 교육면을 담당해야 할 터인데 교장 교감을 발령해 놓고 학교를 짓는데 운동을 하란 말씀이에요? 이것 큰일났어요.

이렇다면 무엇때문에 교장 교감을 공지에다가 학교도 간판도 없는데다가 빈터에다가 발령을해놓고 교장 교감을 괴롭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어요.

명백히발령시킨 이유를 아이들을 가르치기위한 교장 교감이냐 그렇지않으면 학교를 짓기위해서 판자집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전임된 교장 교감이냐 이문제를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교육위원회와 시와 한계를 분명히 오늘 이자리에서 교육감님하고 부시장님이 서로 떡살을 잡고 싸움을해서보아서 한계를 가려놓고 일을 해보십시요. 그렇지않으

면 일이안될것같아요.

교육위원회가서 물어볼것같으면 이것은 시에서 해주어야지요. 시에서는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되어있는데 우리들은 관계없어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 내밀어 내밀어 내일아니다. 내일 아니다 상대방이 일이 잘되는것은 배앞은 모양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현상이니 이름에주는것은 우리 160만시민의 아이들만 죽는다말이에요.

이것 큰일났어요.

그러니 이두분은 이자리에서 명백히 사무한계를 160만시민의 대표앞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두가지 질의의 요점입니다.

이 한계를 지어놓지않고는 저 커다란 난관을 타개하기 어려우리라고 믿고 이대로 둘것같은면 명년 3월 아마 내후년 3월까지 철거되지않을까 몰라요.

그러니 분명히 한계를 지어놓고 일해주신다는 전제밑에서 집행부나 교육위원회에서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교육감의 답변말씀이 있겠습니까.

○교육감 김영훈; 이자리를 비롯한 의원제위께서 우리 서울시 살림살이에 많은 염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이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시고 교육에대한 염려한 나머지 몇가지 물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체로 이문제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도 지지하고 부진하기때문에 여기서 편달해주시는 의미에 물으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서 작년에 설립된 학교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기다가 확보되지 못했기때문에 오늘날까지 늦어진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로서는 어찌든 여기에 책임을 분명히 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4월에 개교못한 학교이나마 여기에 대해서 교장 교감을 배치했는 것입니다.

물론 교장과 교감은 학교가 개설될때에 부하 직원을 감독해서 생도의 교육에 치중할것이 올습니다마는 개교전에 있어서는 개교 준비에 전력을 다하는것이 역시 학교책임자의 행동이 올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복잡다난한 서울시의 사정으로서는 여기에 학교를 만들어놓고 교장 교감을 모셔다놓는다는것보다도 우선 여기에 학교교감으로하여금 그 관내에있는 사정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서 얼마나 학생이 올것이나 또는 자기가 여기에 어떤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를 구성할것이나 또는 여기에 이학교의 교지설정과 학교에대해서 어떤것이나 이러한 생각으로서 오늘날까지 추진했든바 그성과는 사뭇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당국과 교육위원회와의 관계를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아실줄 생각하지만 이것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제자신으로서는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탈선의 모든 책임은 교육위원회가 질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로 말하자면 큰택이요 우리 교육위원

회는 거기서 분가해온 적은집으로 생각하고있기때문에 모든 것을 내다 내다 할것없이 여기에 협조하는것은 사실이 옳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들이려고 합니다.

우선 목정국민학교부터 말씀들이겠습니다.

이제 말씀들인바와같이 목정국민학교는 중구에 있어 반듯이 있어야 될 학교이기때문에 여기에대해서 작년도 이것이 결정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이 계신바와같이 상당한 거대한 면적을 점유하고있는데 여러가지 장사의 장소로 쓰고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약 3분지1되는 1천2 3백평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백여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부터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해본 결과에 그 무허가 주택이 이전할 장소를 서울시측에서 미아리 넘어가서 성북구 출장소에있는 저쪽편으로 한5분쯤 들어가는 장소입니다만은 대단히 좋은 장소입니다.

이것이 벌써 1주일전에 정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있는 점포를가지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불원간 철거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금년내로서는 그것이 나가리라는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신국민학교 옳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 5월28일 이용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장과 5월10일경 협의를해서 오늘날까지 지나 내려놓고있다.

서울시에서도 긴급한것을 느껴져가지고 여기에 이전할 장소를 지금 현재 마장동에 결정하고있읍니다마는 여기에도 5

천세대가 들어있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이전할 장소를 결정해서 그것도 조만간 결정될것같습니다.

아마 늦어도 10월에는 결정되고 예정대로 추진되지않을까 그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림국민학교에 있어서는 금년 4월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신길동에 6천5백8십5평이라는것이 대개 결정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도시계획상 이것이 관계로해서 그후에 오늘날까지 시와 절충중에 있는데 이것이 결정된다면 이것도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암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경당국과 협의해서 4대문구의 대현동산122번지의 3천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찰국에서도 최소한도의 요구로서 여기에 사무소 기타 필요한것이라고 해서 약8백만환정도로서 추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교육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역시 이전해 나가야만 되기때문에 거기에다가 교사아닌 우리 교육위원회의 소요건물을 지어가지고서 여기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것입니다.

이것도 불일간에 공사에 착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늦어져서 미안합니다만은 시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거기에 배치된 교장 교감이 역시 부단의 노력과 저의들의 힘이 미처서 이것이 년내로 대개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편달해주신 그것은 우리관계되는 여러시민에게 많은 자극을 주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감사하는바 올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답변말씀을 들이겠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의회규칙 제2조에의해서 지금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대해서 그대로 이조건이 종결될때까지 계속 할는지 요다음기회로 말든지…….

(「의장」하는이 있음)

○조영석 의원; 지금 논의하는문제가 끝나지않은체 아마 시간이 된것 그래서 먼저 이의제가 끝날때까지 오전회의를 연장할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중구; 거기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조영석 의원; 이어서 지금 교육감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답변을 잘들었는데 조금 의심되는점이 있어서 다시 물을려고 하는것입니다.

이지금 논의된 네개 국민학교중에서 도립국민학교는 본의원의 출신관내에 있기때문에 한마디 할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감의 답변중에서 4월27일 6천5백여평의 평수를 책정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관계로해서 관계당국과 절충하느라고 방금개교를 못하고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답변을듣고 제가 생각하기에 4월27일 이학교교지가 책정이 되어있다고하면 4월부터 오늘날까지 약반년이 걸렸다고 생각이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관계에 어떤 구체적인 관계가 있어서 반년식 날자를 걸렸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못하고 있는것인가 이것을 본의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관계국이면 제가 알기에는 건설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은 도시계획에 이것을 어떻게 보고있는것

이고 이것을 교육위원회와 이런문제를 합의사무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하는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어찌 지금까지 6개월식 걸리도록 이것이 합의를못하고 있는가 이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집행부 건설국장 말씀해주세요.

○건설국장 신현주;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사무에대해서 우리 서울시 사무분장 규정에 건설국이 모든 철거를 시내의 모든 철거를 건설국이 전부한다는 그런 사무분장이 없습니다.

차제에 제가 밝혀놓고 싶은것은 종전에 학교건축을 건설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학교를 짓기위해서는 건축하기위해서는 철거기타를 저의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단 건설국사무분장 규정에 도시계획사업을하기위해서는 반듯이 철거를 저의들이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나 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서울시건설국이 철거사무를 전부 집행한다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보통 생각해보아도 그럴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무를 시행할때에는 건설국이 철거사무를 합니다.

이것은 가령 문교부라든지 혹은 교육위원회라든지 결국 저의들이 철거사무를 집행할때에는 除去狀 모든 등등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행을 시킵니다.

또한 경찰서장으로하여금 협조를 시켜서 같이 집행을하는데 이것 역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구청장으로하여금 집행을 시킬수가있는 문제라고 저이들이 생각합니다.

건설국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기위한 철거만이 저희들

이 할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이갑수 의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것이나 건설국장에서 말씀하신것을 잘들었는데 좀 석연치못한 점이있어서 다시 묻고 이것은 확실히 교육감은 아시고 넘어가셔야 될것같습니다.

철거문제에대해서 교육감에서는 큰집이요 작은집이요.

그저 어물 어물 큰집이나 작은집이나같이 책임이 있지요 하고 넘어가는것같은데 사무직제상 건설국은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대해서는 이익렬의원이 가장 출신구라고 해서 빈번하게 드나드는것을 보았는데 앞으로는 건설국장에게 잘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으로서는 구청장님에게 이집행을 환원해서 署員을 동원시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철거를 책임을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것을 말씀해주셔야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문제가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장 발령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석연치못해요 학교도 없고 생도도 없는데 이북 5도지사는 있겠지만 학적부도없는 학생을 학교도 간판도 없는데다가 교장을 발령시켜놓고 학교를 지어라 누가지어요?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엄연히 책임이 있는데 학교를 지어놓고 교장 교감을 발령해야지 이문제를 뚜렷이 말씀안해주시고 어물 어물한다는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장을순 의원; 이제 건설국장 내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선 자기의 맡은 사무한계를 전연히 모르는 처사의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건설국장이 도시계획철거사무만 건설국에 속한것이다 운운한다고하면 교육감은 당연히 학교 국민학교에 대한 철거 문제는 건설국장이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것을 규정지을수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고하면 교육감이 철거사무조차 올라가지고 일하는것인지 또는 건설국장에서 관계없다고하는데 해당 행정구청인 구청장에게 철거의회를 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따라서 건설국장이 도시계획관한 철거사무만을 했다 그러면 아까 이응린의원이 수차 건설국장에게 말씀을 들인것 같은데…….

그렇다고하면 나는 이 도시계획철거사무에 관계없으니 교육감에게 가든지 경찰서에 가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될거예요.

오늘날까지 자기가 오늘날 의원들이가면 상대를 해서 오늘날 철거사무에 임했다는것을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라 그말이에요.

나는 관계없다 또한 여기서 말씀드려둘것같으면 건설국장이 본건제안에 있어서 사리가 없다는것을 규정짓고 자기가 제안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출석을해서 집행부에 무슨 질문을 했는가 확실히 알고나 와서 답변을 해라 그말이에요.

이제와서 무엇을 들었는지 몰라서 사무처직원에게 물을 지경이니 좀더 건설국장은 안건이 제출되었다고하면 의원들이 제안한 설명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알고 답변을해야지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무엇이냐하는 정도로 물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묻느냐 그말이에요.

교육감께서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이 사실상 그러한것이 옳다고 인정된다면

교육감은 구청장에게 철거의뢰를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날까지 철거사무를 몰라가지고 구청장이 경찰서장에게 한번도 철거의뢰를 안했다고하면 커다란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한계문제를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느이 있음)

○김규원 의원; 이4개 국민학교를 샀다가 인가를 기히해놓고 교감까지 발령해놓고 또 대지까지 이미 결정해놓고 모든 준비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것을 半以 어떤것은 1년 식이상 오늘날까지 지연해왔다고하는 이책임은 첫째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져야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이 나와서 이철거는 건설국에서만 믿은 사무가 아니요 하고 구구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혹은 또앞으로는 여기 협조할수없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꼭 내가 좀한계를 구별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요.

그러면 이철거를 샀다가 특히 말은국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국이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국에다 자꾸 얘기한다면 그것은 불평을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건설국에서 당연히 협조해야할 성질이라고 봅니다.

또 건설국에만 맺길 성질이 아니예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좀더 성의있는 처사를 했든들 오늘날에 이와같은 우리 서울시행정에 무성의하고 태만한 이런 상태가 이러나지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중구 목정국민학교를 말할것 같으면 우리가 놀래지 않을수 없는 사실은 여기대지에 세공민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사람들이 일단 법을 위반해서 무허가로다가 가령 살기가 곤란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면 일응동정할 여지가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준다는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아까도 문학우의원 이응린의원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본의원도 7월말일에 그 일대 구역내에 국과장과 시찰할때에 목격했습니다.

그래 이무허가건축물에 세국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목재상 철물상들이 들어있어요.

세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놀라지않을수없는것은 자유당의 모간부가 있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손대면 목이 왔다갔다하니까 겁을내고 여태까지 손을 대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세국민을 대책을 강구 해주지 못했기때문에 철거를 못했다면 모르지만 거상인들이나 이사람들 그냥 내버려두고 이거 지금 누가 철거한다 이것이 어데에 당한말이나 그말이에요.

철거는 서로 협조해서 할일이고 서로 교육위원회하고 협조해가지고 철거시키도록 해야지.....

그리고 또하나 이교육위원회가 작년 가을에 발족을 해가지고 이철거문제를 교육감이 구청장한테 오늘날까지 지시를 해가지고 한일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건설국 말하자면 철거를 알아서 그 책임을 맡을때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이것이 또 건설국장이 나가서 철거하라는것이 아니고 다만 구청의 건설과 직원들 또 당해경찰서보안계에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면되는거예요.

뭐 일선에 나가서 행동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건설국장하고 교육감한테 질의코저하는 요점은 오늘날까지 권력을 가지고있는 무슨 돈을가지고있는 사람들의 압력에 눌려서 학교는 짓지못하고 사업을하고 있는것은 어찌 답변을 못하느냐 그말이에요.

교육감과 건설국장이 나와서 답변을하고 또한가지는 목정동 국민학교 후보지에 이런 그말하면 그에대한 오늘날까지 철거를 할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었느냐? 그말이에요.

또 교육감도 그것을 알면서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철거할려고하는 그런 구체적 노력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不日날이라고 하지만 그런말을 하지만…….

앞으로 찬바람이 불면 철거가 어려우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읍시다」 하는이 있음)

(「의장」 하는이 있음)

○具喆會 의원; 지금 학교를 인가를 해놓고서 개교를 아니함으로 우리 제2세국민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시민이 불안감을 야기하는데대해서 교육감 시책임자에게 질의를하는 시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성의를 다하고있는중이고 여지의 문제는 여지의 문제대로 사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해나갔다하는 이러한 요지의 답변을 하였고 또지금 주무국이라고하는 건설국장은 이것은 나의 소관사무가 아니라는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썸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보아서 서울시의 행정은 완전히 결함을 폭로한것입니다.

무엇을 폭로하였느냐하면 서울특별시나 교육위원회는 동일

한 지역에서 자치 행정을 하되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만을 관장해서 하는것이고 일반행정은 서울특별시에서 하는것인데 서울시 발전교육을 위해서 모두가 자기주관으로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의 입장만 생각해서 편의대로 밖에 행정을 하고있지 않다고 말씀아니드릴수가 없는것입니다.

건설국장도 지금 말하기를 판자집 철거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건축 규정같은것을 만들어놓을적에 무허가건축물을 전제로서 법 만든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법에 의거한 건물을 대상으로해서 법규를 만들어 냈다고 보는것입니다.

건물행정은 그렇기때문에 건설국 주관으로 되어있는것입니다.

무허가판자집 내지는 건물을 만들어놓게한 책임을 건설국에서 저야할것입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다 할수없는것입니다.

짓게금 해놓은것은 책임이 건설국장에게 있는것입니다.

짓게금 해냈기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허는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예요.

그러니 이건축행정을 건설국장에서 주관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수없는것입니다.

오직 교육위원회의 학교시설을 위해서 철거하는것은 가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건설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위해서 하는것은 나의 소관이나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학교를 위해서 철거하는것은 건축행정이 아닌것인데 도시계획을 위해서 철거하는것만이 건축행정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아실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무허가난립을 시켜놓은 결과의 책임 건설국장이 건축행정을 완전무결하게 수행을 못한 책임의 소재가 건설국장에게 돌아가야 하는것입니다.

그 책임을 느낀다고 할것같으면 철거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결론이 내리게 되는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전례를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시의 행정이 결함이 많아요.

그렇기때문에 시간의 낭비와 재정의 낭비와 노력의 ○성을 ○요하고있는 결과를 가져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문제냐 할것같으면 행정이라고하는것은 각분야에서 창안할것은 하나의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시행할것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킬지가 있는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자기주의에 의거해서 이 희생되면 재정의 낭비가 되건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건 말건 자기의 주관을 實徹하면 이것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 이러한 생각을하고있고 이러한 사고방식밑에서 일을하고있는것이 사실이에요.

요전번 모처에서 도시계획에 의거한 집단철거를 강행했는데 이때에도 구호문제를 사회국소관이 아니다 사회국에서는 이것은 건설을 하기 위한 집단철거니까 우리의 주관사무가 아니고 건설국 주관사무와 맡을하게되면 이런 얘기이지요.

건설국에서 하는사무니까 건설책임지고 건설국에서 땅만주면 그나중에 구호문제는 사회국에서하는것이니까 하는데가 또딴것을 하는데니까 사회국에서 하는것이지 우리는 책임없다 이론은 양쪽이 다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기때문에 골코 죽고 하는 것은 시민뿐입니다.

건설국에서도 건설을 위한 철거를한다고 그러면 만반대책을 강구해야되는것이고 획적 동결을해야 되는것이에요.

획적 연결없이 하나의 자기의 주관을 實徹하려고 하다보니 사무적 체계가 스지않고 그 피해를 시민에게 주게된다 그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지금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시장 부시장 각 국장 교육감 교육위원회 각국장님들은 현재까지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답변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여태까지에 그러한 답변에 형식을 거쳤고 그러한 방법의 행정을 해냈다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것입니다.

개선을한다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게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것은 오늘의 회의에 와서도 답변을 하고있는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종합적인 장래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못하고있는것이 능력의 부정에 기인한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가지는 목적 시민을 위한 성의와 노력을 다 경주했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의만은 확실히 부족하다 그 노력은 시민을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되지않는까닭에 자기를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았다 지는 이렇게 서슴치않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여기에와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되 건설국장에서도 건설행정에 대한 주관사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한번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건설국에서 건축행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할것이나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교육위원회는 철거사무를 교육위원회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획적으로 건설국장 내지

는 시와 교육위원회사이에 이러한 종합적계획을 수립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결과를 좋게 가져올수있다고 보는데 무엇때문에 못했느냐 말이에요.

내일 내일 따질것없이 황적연결을 취했다고할것같으면 나는 오늘날 이렇게 집도없고 아이들이 없고한 이러한데에다가 선생을 교장을 임명해놓고 쓸데없는 국비의 남용을 하지않고도 할수있으리라고 보는데 무엇때문에 이러한것을 안했느냐 묻고싶습니다.

했다고할는지 모르되 했다면 어느정도까지에 실현을 거두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이것이 아까 교육감이 말하기를 금년내에는 이상 네학교를 다 계획대로 추진할수있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형태대로 나가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지않는다고 그러면 금년내에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과학적증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중구;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그치고 집행부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육감 말씀해주시요.

○교육감; 여러분이 진지한 시정토론하시는 귀중한 시간에서로 답변으로서 시간 낭비할까 두려워 간단히 말씀드렸으나 양해안되서 죄송합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상권대는 건설국장님께서서는 사무한계를 말씀하신것이고 시당국과 교육위원회가 피차 책임회피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로서 더욱이 사무집행하는 교육감으로서 지난 4월부터 이일에 힘껏 노력해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다싶

이 잔년 12월 2일 교육위원회가 발족을 보았고 11월27일 제가 교육감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진영이 정비한것이 금년 4월말이 올시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불과 5개월이었습니다.

1년이상 개교된지 교지가 확정안된데에 있어서 해방후 학교를 많이 세워보자는것은 사무당국의 절실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인계를 받고 시장 부시장 각국과장님께서도 종전보다도 협력할테니 문을 열어보라는 고마운 말씀을 했습니다.

철거문제도 이렇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을 집행하는 서울특별시장께서 의뢰만 할수없는 것입니다.

또 구행정을 믿어가지고있는 구청장에게 의뢰를 안할수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찰당국인 경찰국장과 각경찰서장에 대해서 협력을 누누히 의뢰해왔던것입니다.

또 오늘날까지도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써 아까 말씀한 것과같이 건설국장 자신이 후보지를 책정하느라고 미아리를 저하고 동행해서 몇번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할터를 닦고 있는것을 볼때에 4, 5개월동안에 후보지를 책정하고 정지하고있는것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옮겨갈라고 한 목정동의 60여호가 들어있는 그것을볼때에 과거의 체신부예의 철거문제를 보건데 4, 5개월간 지연될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 교장 교감의 임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언제나 학

교장설이 새로되면 교장 교감을 미리 임명합니다.

그러므로써 책임자가 생기고 준비적인 일을 보게됩니다.

학교터로 알면서도 옮겨가지않을려고 하는 그사람과 그걸 알고도 「하꼬집」이 더들어선것을 볼때 집행부와 교육위원회의 책임보다 다 사회전체의 책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변인인 여러분이 이와같이 열렬히 와쳐주신다면 모르고있는 피난민의 귀에도 들려가지고 빨리 실현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네학교가 해결되고 이미 해결된것과 동대문국민학교가 열린다면 나로서는 이로서 서울시민이 만족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암국민학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하느이 있음)

안암국민학교는 곧 이전해나갈 청소차의 사무를 입찰하겠습니다.

우선청소차가 이전해가리라고 봅니다.

○부의장 이중구; 다음 산업국장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책임있게 다시 질의안나오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조기항의원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신국민학교 건축부지로 되있는땅은 동대문가축시장 그땅입니다.

금년 이가축시장을 교육위원회가 쓰도록 책정되었는것입니다.

이전예산이 1천6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집행하려고함에 자원내용에 있어서 저의가 이 자원내용에 있어가지고는 교육위원회특별회계로서 용지매수대로 1천6백만원을 받아서 이전비에 충당하도록 되었던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예산에는 이예산이 계상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누차 회동을해서 이것이 딱 용지가 아니고 학교용지만큼 전입문제는 당분 보류해두고 집행해보자는데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설계가 완성이 되가지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데는 12월말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이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아까 말씀하신 이전후보지에 약40채정도의 판자집도있는데 이것은 공사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문제가 되지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연되지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이것으로 시간관계로 답변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이걸로 종결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은 이걸로다가 그치게하고 아까 오전회의에 계속된 건을 집행부에서 오늘 시간이 없고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관계로 내일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신 내일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월남대통령시장초청오찬회개최에 관한 질의의견 교육세징 수사무에 관한 건의의견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장설치조례제정의 건을 내일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다가 오늘 회의는 끝나치겠습니다.